

어버이날(8일)·입양의 날(11일)...생이별한 두 가족의 애타는 사연

# 엄마 찾는 딸... 딸 찾는 엄마 '수십년 그리움'

44년전 네덜란드 입양 비양카씨  
여수·광주 돌며 전단지 배포  
내가족 늘 궁금하고 그리웠다  
SNS서 엄마찾기 도와주세요

37년전 헤어질 딸 찾는 A씨  
전남편이 보육원 맡긴 뒤 이별  
내딸 김소영 꼭 만나고 싶어요

"저의 뿌리 그리고 가족들이 늘 궁금하고 그리웠습니다."

어버이날(8일)과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44년 전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40대 해외 입양인이 어머니를, 37년 전 피차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보육원에 맡겨야만 했던 50대 여성이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

네덜란드로 입양됐던 여성은 자신이 발견했던 여수와 광주 곳곳을 돌며 가족을 찾는 전단지를 배포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다시 귀국 비행기에 몸을



비양카씨의 입양 직전 모습(왼쪽)과 현재

실었다.

8일 충청원과 여수시청 등에 따르면 비양카(여·45)씨가 지난 22일 어머니를 찾기 위해 광주 충청원과 여수시청 등을 찾아 왔다.

지난 1972년 1~5월 사이 여수에서 발견된 비양카씨는 그해 6월8일 광주 충현원에 맡겨졌고, 6개월 만인 1973년 2월16일 서울에 있는 한국사회봉사회를 통해 네덜란드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프린터로 글을 쓰고 있는 비양카씨의 고국 방문은 이번이 세번째. 그는 지난 2010년 11월 이후 두 차례 방문에서 자신의 뿌리가 남아 있는 한국사회봉사회, 광

주 충청원, 여수 삼해원 등을 찾았다. 부모를 찾기 위해 나선 길이었지만 입양 기관에 남아있는 정보는 '성춘자'와 '김상희'라는 이름, 그리고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이 이름마저도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양카씨는 해외입양인보호 비영리민간단체인 '뿌리의 집'을 통해 이뤄진 이번 방문에 큰 희망을 걸었다. 처음으로 발견 당시와 입양 직전, 그리고 현재의 사진과 사연을 담은 전단지 1만 장을 제작했다. 지난 22일 광주를 찾아 남광주시장과 사직공원, 양림동 등을 돌며 전단지를 배포했고, 23~24일에는 여수시청과 삼해원을 방문한 뒤 여수시시장 등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 전단지를 SNS 등에 올려줄 것을 호소했다.

유해량 충청원 원장은 "비양카씨가 정말 많이 울면서 '나는 엄마를 다 이해한다. 일단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없는 게 슬프다. 무엇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한국에서 태어난 나 자신의 뿌리 그리고 친 가족들이 늘 궁금하고 그리웠다'고 말

했다"며 "이달 초 떠나면서 가족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비밀리에라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A(여·54)씨도 37년전 헤어질 딸이 그리기만 한다.

1980년 3월(추정) 당시 19살이었던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하지만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A씨는 '돈을 벌여 오겠다'며 딸을 외가로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2개월 뒤 다시 외가를 찾았지만 어머니는 딸을 전 남편에게 보냈고, 전 남편은 "혼자 키울 수 없어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A씨가 기억하는 딸의 이름은 '김소영'이다. A씨의 딸 권지나(여·30)씨는 "어머니는 언니(김소영)의 눈 주변에 있던 푸른 반점과 뜨거운 물에 데어 손등에 남아 있는 갈색 반점과 같은 흉터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며 "몇 년 전부터 언니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제보 및 문의는 충청원(062-652-5500)으로 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쪽파밭 어머니는 오늘도 자식생각

매운 냄새가 진동하는 쪽파밭에서 한 어머니가 쪽파를 수확하고 있다. 하루 내내 주저앉아 일해 받은 품삯은 6만원. 손주들에게 과자라도 사주겠다며 새벽에 몰래 집을 나와 하루내 일하신다. 자식에게 누가 될까 사전에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며 끝내 수건으로 얼굴을 감추시며 고개를 숙이신다. 어버이날인 8일. '모정'이라는 의미의 카네이션. 흠뻑지 나무끼는 일터에는 밟고 오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꽃의 의미보다 더한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정'이 담겨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선 승강기 안에 갇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30여분 만인 오후 1시께 지상 1층과 지하 1층 사이에 멈춰선 승강기 안에서 이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승강기에 다른 탑승객은 없었다. 기도가 막히는 증상으로 수술·치료 중인 이씨의 구조가 늦어졌다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다고 119 관계자는 전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 여수서 고흥서...하마터면 인명사고 날 뻔

술 취해 바다에 빠진 4명 구조  
호흡기환자 승강기에 갇히기도

부주의가 하마터면 아찔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20대 4명이 술에 취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고, 호흡기 환자가 승강기 고장으로 밀폐공간에 30여분간 갇

힌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7일 오전 2시5분께 여수거북선축제 현장인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 내 물양장에서 A(29)씨 등 20대 일행 4명이 바다에 빠졌다.

사고가 난 곳은 배를 대기 위해 바다 쪽으로 완전한 비탈 형태의 구조물이 있던

곳으로, 술에 취한 일행 중 1명이 이곳에서 미끄러져 바다에 빠지자 나머지 3명이 구조하려다 오히려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때마침 순찰 중이던 축제 안전요원에 의해 모두 구조됐다. A씨 등은 추락 과정에서 발목이 접질리고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 고흥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환자 이모(여·64)씨가

##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 노래라는 극우인사

### 5·18재단 '항당 왜곡' 법적 대응기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황당한 주장을 책을 통해 펴고 있는 극우인사에 대해 5·18기념재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해 11월 비봉출판사에서 출판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저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5·18재단은 해당 서적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랫말을 불인 황석영씨를 비롯해 9명의 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률 자문을 내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43쪽짜리 단행본으로 출간된 해당 서적은 '김대령'이라는 필명으로 자신을 재미사학자라고 밝힌 인물이 집필했으며, '국가행사 기념곡 지정에 대한 찬반 토론자료'라는 부제가 붙었다.

김대령은 저서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목에서 '임'을 지칭하는 실제 대상이 북한의 김일성 전 주석이며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라는 가사는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황석영 열사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라는 자생 간첩단의 조직원이며 군인을 살해하고 수류탄으로 자폭한 인물이라서 추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술했다.

김대령은 이 노래를 만드는 일에 참여

한 황 작가의 실체가 김일성의 장학생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헌재, 이재의, 이양현, 이태복 등 9명 가량을 '종북인사'로 규정하고 5·18광주민중화합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을 곳곳에 담았다.

5·18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남민전의 음모로 일어났고, 가톨릭농민회는 김대중과 손잡고 대규모 폭력 무장봉기를 준비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5·18 재단 관계자는 "김대령이 서술한 책을 자체 분석을 거쳐 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의뢰해온 상태"라며 "자문 결과 가 나오면, 황석영씨를 비롯해 명예를 훼손당한 인사들의 의사를 묻은 뒤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1981년 소설가 황석영이 광주시 북구 운암동 자택에서 백기완 선생의 시 '뫼비리'를 개사하고 전남대 학생이었던 작곡가 김중철이 곡을 붙인 것으로,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다.

한편 광주지역 국민연맹 당선인과 광주시, 시의회, 시교육청 등은 제36주년 5·18 기념행사위원회와 함께 10일 답답문을 발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과 기념식 제정, 역사교과서 등 교육현장에서 5·18 왜곡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나주 정신병원 탈출 청소년 6명 30분만에 붙잡혀

나주에 있는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10대 청소년 6명이 집단 탈출했다가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나주경찰은 8일 간호사를 폭행하고 정신병원을 탈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15)군 등 10대 청소년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5일 오후 4시20분께 나주의 한 정신병원 3층 폐쇄병동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조무사(46)를 폭행하고, 간호사(여·38)를 힘으로 제압한 뒤 현관문 열쇠를 빼앗아 달이던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병원 측의 신고와 주민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3km 떨어진 저수지 인근에서 이날 오후 4시50분께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서 "간혀 있는 게 답답해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A군 등이 탈출한 폐쇄병동에는 행동장애와 정신지체 등을 앓고 있는 10대 청소년 2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 등 3명은 성폭력이나 절도 등의 전과로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병원 측의 관리 허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scn@

## '잔'하고 선배 놀래키려다...놀란 행인에 맞고 "어이쿠"



함께 술을 마셨던 선배를 재미있게 해 줄 요량으로 건물 뒤에 숨어 있던 40대 남성이 애꿎은 남성을 놀라게 해 폭행을 당하는 봉변.

○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8)씨가 지난 6일 오후 9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거리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 전모(58)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것.

○김씨는 이날 전씨를 자신의 선배(71)로 착각해 건물 뒤편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경찰은 "전씨가 놀라면서 휘두른 손에 김씨가 맞은 것 같고, 두 사람이 화해해 공소권 없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모델 지리산 온천지구내**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10억 (일시불 조정가)
-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별도
- 리모델링 후 연 4억원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여수, 대지매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5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오천경매**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3억 6천만원 포함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임대중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 비법 배우면서 투자하실분!
- ▶ 특수 물건과 NPL만 전문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 ▶ 예약 상담 필수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